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보다 자세한 안내를 위해 방문카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월 목장지기 모임안내

다음 주일 점심교제 후에는 9월 목장모임을 위한 목장지기 모임이 있겠습니다.

2. 예배 위원 모임

오늘 점심교제후에는 예배부 주관으로 수요일예배, 주일 예배 기도담당자와 찬양팀 모임이 있겠습니다.

3. 메디케어 세미나

일시: 9월 9일(토) 오전 10:30, 장소: 킹스웨이 교회

문의: 남전도회 회장

4. 필리핀 선교지 단기 사역

일시: 9월 11일(월)~18(월)

사역지: 필리핀 두마게티/ 보홀, 마닐라

*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교우소식

* 9월 생일 축하: 김연식(10), 김도남(13), 최혜숙(14), 헤더웨버(19),
강애란(28), 양복남(29)

중보기도: 김경미(목수술 후 회복중), 이영하(낙상), 노창완(목 재수술 일정)

기도제목 Prayer

-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진리에 바로 선 성령충만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복음사역에 앞장서게 하시고, 지역사회와 교인들의 필요를 민감하게 살피 채우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시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담임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부음이 넘치게 하소서
- 각 가정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더욱 하나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자녀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옵소서.
-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
멕시코 (YWAM/ 김현수선교사), 대만 (IMB/ 구에드워드선교사),
인도네시아 (IMB/ 조용수 선교사), 베트남 (동민통 전도사, 신미짜 목사),
필리핀 (스티브마이클)/선교지 단기사역 일정: 9월 11일~18일(마닐라, 두마게티)

왕의길
예배하는
교회



담임목사

강문수 Senior Pastor/Kang Moon Su (Cell 678.770.3330)

400 King's Way, Suisun City, CA 94585

TEL _ 707.803.5400



웹사이트 & 온라인 예배

400kingsway.org

400kingsway@gmail.com

주일 예배 순서 Sunday Worship Service

· 인도 및 설교: 강문수 목사

찬양으로 경배 we worship in song	주사랑 찬양팀
주의 만찬/성찬식 Communion/The Lord's supper	다같이
기도로 경배 We worship in prayer	양복남 장로
금주의 경배의 기회들 Welcome & Announcement	공동체 소식 / 인도자
십일조와 헌물로 경배 We worship in giving	< 헌금은 들어 오실때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
말씀으로 경배 Reading Scripture	로마서 8:18~25
말씀선포 Message	"고난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 강문수 목사 로마서 강해 26
찬양으로 경배 we worship in song	다같이
축도 Benediction	강문수 목사

수요 예배 · 9월 06일(수) 오후 7시

찬송인도 we worship in song 양복남 장로 / 기도 Prayer 이강욱 집사
"출애굽기 성경여행" / 강문수 목사

아침 기도회 · 매주 화~토 오전 7시

에스겔 강해 인도/ 강문수 목사

예배위원 안내

	9월 03일	9월 10일	9월 17일	9월 24일
주일기도	양복남	이길용	박응식	노창완
주일방역	인도네시아	멕시코	필리핀	대만
점심교제	인도네시아	멕시코	필리핀	대만
수요기도	이강욱(9/06)	이난주(9/13)	이성혜(9/20)	이옥자(9/27)

설교노트

본문: 로마서 8:18-25
제목: 고난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설교: 강문수 목사

* 들어가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어떠한 자세로 감당해야 할까요?

* 묵상하기

- 고난만 바라보지 말고 고난 너머에 있는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18)
- 씩어질 옛 몸의 열매이는 것에서 자유 함을 얻게 되는 날이 올 것을 기대하십시오. (19~23)
-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24~25)

* 적용하기

- 내가 고난을 당할 때에 나는 고난을 바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나타날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 나는 이 땅에 보이는 것을 바라는 자 입니까? 아니면 고난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더 큰 기쁨과 영광을 바라며 사는 자 입니까?

예배 및 모임 안내

주일예배	주일학교	수요예배	아침 기도회
오전 11시 (한/영)	오전 11시	오후 7시	오전 7시(화~토)
주일 설교방송		유튜브 생방송	
			